



제2차세계대전후 60년의 재발견

젊은이들은 왜 농산촌을 지향하는가?

올해는 전후 60주년의 획을 긋는 해.

패전 후에 태어나 농산촌에서 자라나고 도회지로 나가 고도경제성장을 지탱해온 『단카이(團塊)의 세대』가 2년 후에 계속해서 정년퇴직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그 숫자는 대략 700만명에서 800만명 정도.

그래서 1970년대 이후 도시에서 출생한 단카이(團塊) 주니어는 800만명. 그러나 그들은 기업에 순조롭게 취업할 수 있었던 단카이(團塊)세대와는 매우 상황이 다르다. 34세 이하로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후리터 400만명, 취직도 취업을 위한 공부도 하지 않는 니토라고 불리우는 젊은이가 60만명을 넘고 있다. 종신고용·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하여 재생산 해온 전후일본의 기업 사회는 겨우 2세대 60년으로 크나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통계숫자만은 아니지만 현재 농산촌의 눈을 돌려 농산촌의 전후 60년을 지켜온 조부모 세대의 기술이나 지혜에 감동하여 그 기술이나 지혜를 계속 수용하려 하고 농산촌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게 증가 하고 있다.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서 농촌진흥은 말할 수 없다

熊本縣 南阿蘇村(쿠마모토현 미나미아소무라, 舊白水村)의 二子石敦男씨(53세)와 大津耕太씨(30세)의 두 사람은 20농가의 동지들과 함께 『오아시스 쌀 생산조합』만들어 전국 700가구 이상의 가정에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다. 『오아시스쌀』의 이름은 「오이시(맛있고), 안젠(안전하고), 신센(신선하고), 스테키(매우 훌륭한 쌀)의 의미로부터 만들어 졌다. 舊白水村은 日本全國名水百選에 선발된 「白川水源」을 필두로 쿠마모토현의 名水百選에 7개소가 선정된 名水(이름있는 좋은 물)의 고장이다. 그런 물과 「戀愛農法」(戀=고이(붕어), 愛=아이가모(오리)에 의한 제초)으로 『오아시스쌀』이 만들어 진다.

大津씨는 쿠마모토시 출신, 부인 愛梨씨(31세)는 독일에서 출생하여 도쿄에서 자랐고, 둘다 慶應義塾大學環境情報學部를 졸업후 독일 뮌헨공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후계자가 없었던 숙부 大津勵志씨(51세)의 농업후계자가 된 것은 1년 전의 일이다. 勵志씨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여 수년전에 그만두었던 번식우도 부부의 농사참여로 재개하였고, 현재 성우만 14두. 모두 阿蘇名物인 「붉은 소(赤牛)」이다.



농민이 된 이유에 대해 大津부부는 「대학에서는 『밝은 농촌만들기』가 연구테마였다. 원래는 지역계획이나 환경조사가 전문이었지만 실제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촌진흥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진정으로 농업의 진흥을 생각한다면 숙부의 농업을 계승하는 것이 최고! 그런 생각이 점차로 강렬하게 되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농업만이 아니다. 일본 제일의 면적을 자랑하지만 유지관리에 일손이 많이 들어 매년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阿蘇草原을 지키기 위해 갈대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상품화 할 수 없을까?라는 신념으로 NPO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도는 경제산업성의 「환경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도 채택되어 조사와 실험에 들어갔다.

생활·생산문화의 계승을 「일로

지금 농산촌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은 대학, 대학원졸업 혹은 외국유학체험자가 많다. 新潟(니이가타현) 上越市(조우에쓰시)의 마을가꾸기 NPO 「카미에치고 아마자토 플랜클럽」의 경우 남자 4명, 여자 5명 총 9명의 멤버 가운데 8명이 대학졸업자이고, 그 중 2명이 대학원 졸업, 1명은 일본과 미국의 대학 두 곳을 졸업했다. 농산촌은 그들의 「고쳐 서 바로 배우는」 場이 되었다.

이 멤버가 NPO를 설립한 2001년에 우선 실행했던 것은 「전통생활기술 렛도 데이터」의 작성이었다. 활동의 場인 桑取谷는 水源의 삼림으로부터 바다까지 약 13km의 桑取川 주변에 9개 부락120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농업과 양잠을 중심으로 산골마

을의 문화가 형성되어 눈(雪)이 많은 지역 특유의 전통기술, 전통행사·예능 등이 다수 남아 있지만 요즘은 고령화나 젊은이의 유출로 이것들이 매년 소멸하고 市 무형문화재지정인 설 행사나 桑取谷 특유의 기술 「외날 썰매」도 그 전승이 의심스럽다. 외날 썰매라고 하는 것은 放射冷却으로 산속의 雪面이 얼었을 때, 스노우 보드 같은 썰매에 V자의 가로대를 끼워 솥이나 억새를 싣고 단번에 미끌어 내려올 수 있는 기술.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본 그들은 「당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당신은 나이는 몇 살입니까?」의 질문 용지를 전 가구에 배부하고 「絶感危惧生活技術」을 리스트업 했다. 80세를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한계연령으로 가정하고 기술보유자가 80세에 도달할 때 까지의 年數를 기술전수 유예기간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몇년만에 그 기술이 소멸해 버릴 것인가?를 추정했다. 이것을 일람한 것이 「전통생활기술렛도 데이터」이다.

그것에 의하면 위기수준 A랭크는 石工으로 기술보유자 1명, 소멸 추정년은 0년, B랭크는 억새지붕 수선 2명 8년 외에, 대나무가공 9명 8년, 양잠 6명 8년, 장작(빨나무)채집 8명 9년, 안지키(일본화로 위 천정의 대나무 엮기)만들기 1명 10년, 등, 그리고 C랭크의 토방 만들기, 새끼 꼬기, 우물파기, 외날 썰매, 다랑이논 손질하기, D랭크는 잡목재 손질하기, 좀더 유예기간이 긴 E랭크는 큰 목수로 7명 22년, 미장이 5명 24년이었다.

「카미에치고」에서는 위기랭크가 높은 순으로 스스로 그 기술과 지혜를 계속 전수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건축물부회」 「민속행사·예능부

회」 「먹을거리와 농업부회」 「강의 선물부회」와 더불어 도시생활자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역새초가 古民家개수, 桑取전체마을학교」 「염전에서 전통소금만들기 체험」 「일본해 연어잡이와 연어자반 만들기 체험」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써 제공하고 있다.

自給에 부리를 내린 自治를 창조

「카미에치고」에서는 「시민의 숲」이나 「리후레쉬 빌리지사업」등 연간 약 3,000만엔을 上越市の 운영 위탁 사업을 받고 있다. 9명의 스태프를 고용해 겨우 4년 동안에 많은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체험사업이나 환경교육 등의 기획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위탁사업에 의한 부분도 컸다. 그러나 거기에는 종래의 위탁사업과는 첫째도 둘째도 다른 창조성이 있었다. 「카미에치고」의 사무국장인 中川幹太씨(30세, 요코하마현 출신, 히로시마대학 공학부 건축공학과 졸업)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탁사업비에서 숫자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위탁사업담당의 스태프 일지라도 위탁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행사의 지원, 전통문화의 기록보존과 체험(문화진흥), 환경미화 활동에 참가(환경), 지역관광자원의 발굴로써 사업화(관광), 노인의 체험강사로서 초빙과 독거노인의 생활지원(복지), 농업진흥과 상품화·판매촉진(농림수산), 지역자치정책의 제안 등 공익성이 높은 자치적인 업무를 NPO의 스태프로써 자주적, 저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위탁사업의 한가지인 「지구환경학교」를 폐교된 초중학교 校舎를 이용해서 환경교육사업으로는 위탁내용에 있는 환경교육 이외에 입지하는 나카노마타(中の) 지역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上記와 같은 행정지소와 유사한 기능을 갖기 시작했다.」

「카미에치고」의 젊은이들이 창조하고 있는 것은 「일거리」만은 아니다. 桑取라고 하는 舊村, 또는 폐교된 教區의 단위로써 자급에 뿌리내린 새로운 자치커뮤니티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단카이(團塊)의 세대를 되돌아오게 하는 준비의 추진

『젊은이들은 왜 농산촌을 지향하는가?』에는 전후 부흥과 그 후의 고도경제성장에 의해서 초래된 황폐함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산촌 NPO나 그린 벤처, 자연학교를 세워 그 재생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愛媛縣(에히메현) 松山市(마츠야마시)의 「프레스코」는 2002년 당시 에히메대학 대학원생이었던 牧野耕輔(마키노)씨(현재 32세)와 3명의 학생이 만들 마을 가꾸기(지역부)와 산의 일거리(삼림부)의 두 축으로 하는 유한회사.

지역부의 업무는 「농산촌의 풍요로움의 확인과 공유」 — 「일본에는 사방에 걸쳐 집락이 있다. 縄文時代(조몽시대)부터 사람들은 집락을 형성하고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을 활용하여 서로 도우면서 생활을 해왔다. 근대에 걸쳐서는 집락에 자치적인 기능이 부가되고 지역마다 『인간과 자연의 교류』 『인간과 인간과의 교류』의 방법이 생겨났다. 이들 관습은 인간들의 삶을 지탱해온 자연환경과 함께 『고향의 문화』로써 각 집락마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過疎·高齢化가 심화되는 오늘날, 농산촌의 훌륭한 환경과 문화의 전승은 점점 곤란해지고 있다. 지역부에서는 도시와 농산촌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서 농산촌지역의 매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재확인 하고 도시사람들에게 전



달해 가는 활동을 목표로 한다.」

삼림부의 업무는 「풍요로운 삼림 가꾸기와 未利用 목재자원의 적극이용」— 「전후의 연료혁명이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우리들 주변의 목재제품의 대체상품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국산재의 가격하락 등으로부터 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산에는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목재자원이 축적되고 있다. 삼림부에서는 이 『미이용 목재자원』의 유효활용을 통한 삼림준비와 탄화에 의한 목재중의 탄소고정을 통한 순환형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사업에 돌입하고 있다.」

「다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설치운영식의 대형탄화장치 「炭匠」의 개발·판매나 탄화대행 서비스이고, 길가에 숲을 매설하여 잡초를 억제하고 하고, 혼연처리한 대나무재료로 마츠야마城 부지 내의 암거배수를 하는 등 환경재료의 개발 등이다.

熊本縣(구마모토현) 菊池市(기쿠치시)의 NPO 「키라리水源村」에서는 중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기쿠치고향 水源交流館」을 거점으로 그린투어리즘과 지역가꾸기의 기획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부모와 아이들이 연중 쌀 만들기, 먹을거리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촌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기쿠치 맛있는 마을가꾸기」, 지구의 전통예능을 전수하는 「기쿠치 神樂教室」, 농산물의 가공이나 직판, 水源地元學에 의한 지역자원지도 만들기, 하천변이나 폭포의 정비, 산의 손질, 국제교류캠프의 유치 등 사업은 다채롭다.

사무국장인 小林和彦(고바야시)씨는 埼玉縣(사이

타마현)출신으로 國學院大學 經濟學部를 졸업한 31세이지만 이제부터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단카이(團塊)세대를 어떻게 마을에 되돌아 올수 있게 할 것인가?도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다.

「농촌은 드디어 도시로부터 농산촌에 되돌아오는 정년그룹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다. 집을 지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지금 산촌에 있는 선배들과 함께 산을 지키는 것이나 집 만들기의 이념을 확실히 전달한다면 고장의 산에 있는 나무로 집을 지어서 살아볼까? 또는 수용하는 층의 공동주택을 환경 및 인간 친화적인 향토의 재료로 건축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간벌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진 나무가 『집』이 된다. 단카이(團塊)의 세대가 갖고 있는 70조엔의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방법의 절차를 제안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일 지도 모른다.」

전후60년의 기업사회를 뛰어 넘는 농산촌의 재발견

『젊은이들은 왜 농산촌을 지향 하는가?』의 기획·취재로 젊은이들의 행적을 쫓는 동안, 그들의 나이가 압도적으로 32세 전후인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럴까를 조사해 보았다. 그래서 조금은 놀랐다. 일본 경단련이 「신 시대의 일본적 경영——고용 포트폴리오」이 되는 고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1995년. 정말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한 해였다. 거기에는 「고용의 유연화」로써 ① 장기축적능력활용형(장래의 간부후보로써 장기고용이 기본), ② 고도전문능력활용형(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반드시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 ③ 고용유연형(기한

을 정해놓은 고용계약으로 직무에 맞는 유연한 대응)으로 고용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불황으로 기업의 채용수가 감소한 것은 물론 고용형태 그 자체가 종신고용·연공서열의 시대로부터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連合(레고) 등의 노동제도 그것을 허용했다.

이리하여 정식사원은 격감했고, 「값싸고 교환 가능한 파츠노동력」으로서 파견·계약사원, 파트·아르바이트가 대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5년이후 10년간 비 정규고용은 50% 증가해서 지금은 1,500만명 이상. 한편 정규고용은 10%감소하여 3,500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금에서야 니트, 후리터의 증가에 의한 장래의 稅收·노동력 부족을 염려하여 「젊은이 자립학사 창출지원사업」등의 젊은이 고용대책을 만들어 냈다. 그 하나로써 「젊은이의 人間能力을 높이기 위한 국민회의」는 奥田碩(오쿠다) 경단련회장을 의장으로 笹森清(사사모리) 連合회장 등 「경제·노동·교육계의 대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5월에 개최된 제1회 의사록에 눈을 돌려보아도 그들은 니트, 후리터의 증가를 어디까지나 젊은이들 자신의 문제로서 논하고 있을 뿐으로 위원회 스스로가 선택한 「고용의 유연화」의 결과라는 인식은 없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농산촌으로 향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희망대로 취직할 수 없고 만약 취직했다고 해도 『종신고용』등의 개념은 처음

부터 우리들에게는 없었다. 자신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려운 취직 활동 가운데 그런 일을 새롭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 동세대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불황 가운데 성장하여 어른이 된 우리들 불황세대의 저력이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大津耕太, 愛梨씨)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일까?」 — 농산촌에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있다.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조부모세대, 단카이세대, 그리고 단카이 주니어인 자신들의 노동관은 어떻게 다른가와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니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조부모세대는 생활과 생산의 場이 중첩되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가는』지역을 가꾸는 것이기도 하다. 단카이 세대는 생활과 생산의 場이 분리되어 조직중심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이 일어났다. 그 어린아이들, 결국 단카이 주니어인 우리들은 지금 한번 지금까지의 생활방식, 노동방식을 다시 돌아보고 삶의 방식과 일 거리를 접근시켜 보고 싶었다.」

인간은 누구나 보다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누군가에 도움이 주고 싶어 한다. 젊은이는 그렇다. 그러나 전후 60년의 기업사회는 지나친 경제합리화에 의해 노동을 경제적 문맥으로만 취급하게 되었다. 「일의 반작용에 의해 배운다」라고 하는 노동의 본질, 노동의 교육적 측면은 지워 버리고 젊은이들을 교환 가능한 패스노동력으로만 취급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사회의 계승



일본의 농촌소식

이 위기에 처해있다. 거기에는 자신이 기능이나 기술을 몸에 익혀 날마다 성장해 가는 실감을 느낄수 없다.

그러나 농산촌에서는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 지역의 계승 그것이 일거리이다. 생산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일거리와 삶이 일체로 되어 있는 농산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공간. 거기에는 산이나 강, 한 뼘미 한뼘미의 논과 밭 등, 지역의 자연에 작용하고 반작용으로 되돌아오는 노동을 통해 형성된 개성적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 그것들을 계승해 가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성장

을 실감한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몸소 실현하는 조부모세대, 조부모세대와 함께 농업근대화의 가운데 농업경영을 수행하며 도회에 나간 형제, 자매를 지원해온 마을의 현역세대, 그리고 지금 「제2의 인생」을 맞이하기 시작한 단카이세대와 「노동에 의한 배움」을 추구하는 단카이 주니어들. 이들 세대 사람들이 서로 연계될 때 「전후 60년의 재 발견」이 시작된다. 농산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젊은이들과 함께 농산촌과 일본, 세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싶다.

〈일본 현대농업 9월호, 본 협회 사무처 번역〉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농기협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농기협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농기협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 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